

# 최근 소비 동향과 향후 전망

글 : SERI 신창목 수석연구원

# 1 최근 소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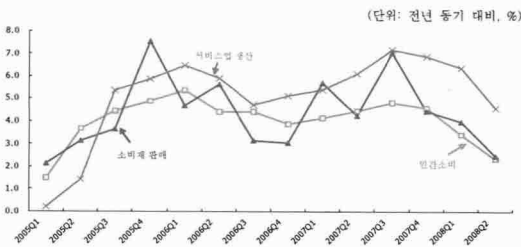
## 2008년 들어 소비 관련 지표가 일제히 하락

- 2007년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회복에 일조를 했던 민간소비가 2008년 들어 크게 위축되며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재개
- 2007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.7% 증가하며 41.7%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에 일조
  - 2006년 1/4분기를 고점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가 2007년 중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간 부진했던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
- 2008년 상반기 중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2.9% 증가에 그치며, 경제성장 기여율도 27.5%로 크게 축소
  - 민간소비증가율(전년 동기 대비) : 3.4%(2008년 1/4분기) → 2.3%(2/4분기)
  - 민간소비가 경제성장기여율 : 30.5%(2008년 1/4분기) → 24.1%(2/4분기)



- 2008년 2/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.6% 증가하는데 그치며 2008년 1/4분기의 6.4%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
- 소비자 판매도 2008년 2/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.5% 증가에 그치며 2008년 1/4분기의 4.0%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

### 〈 최근 소비 지표 추이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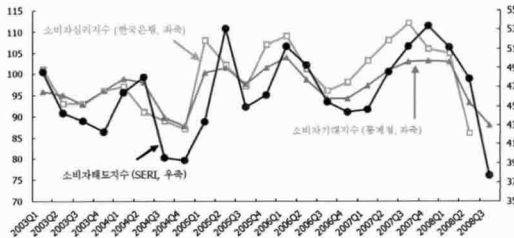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, ECOS DB; 통계청, KOSIS DB

-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자 판매도 2008년 들어 증가세가 둔화
-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고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

- 향후 소비 추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비심리 지표들도 크게 위축
- 2008년 들어 소비심리가 급랭하며 주요기관의 소비심리지표들이 과거 카드버블 붕괴 시의 수준까지 하락
  - 삼성경제연구소의 소비자태도지수는 2007년 4/4분기의 53.4를 정점으로 2008년 3/4분기에는 15.7p 하락한 37.7을 기록

〈 최근 소비 지표 추이 〉



## 2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

### ① 물가 급등

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

-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FRB는 2007년 하반기 이후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
  - 미국 FRB는 7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5.25%에서 2.00%로 325bp 인하
- 미국 FRB의 금리인하 개시 시점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 달러화 약세기조가 강화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앙등

- 로이터-CRB 선물가격지수가 2008년 1/4분기 중 장기추세치를 약 14% 상회하는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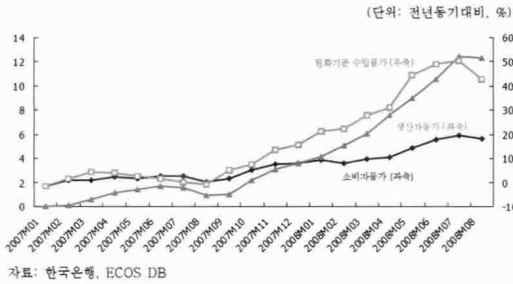
■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2007년 8월 이후 수입물가가 급등하고 그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 물가도 높은 상승세를 지속

- 원자재 수입이 총 수입의 57.0%(2007년 기준)를 차지하는 등 국제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수입물가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
  - 원화 기준 수입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8년 7월과 8월에 각각 50.6%와 42.6%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가 지속

-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도 2007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2008년 7월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5.9%와 12.5%의 상승률을 기록
  - 2008년 7월 중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함에 따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8월에는 각각 5.6%와 12.3% 소폭 축소
  - 최근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재개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재차 상승하는 등 물가 상승의 압력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



### 〈 주요 물가지표 추이 〉



- 비농 전 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임금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2/4분기 명목 및 실질 임금 모두 1/4분기에 비해 축소
  - 특히, 물가상승세를 감안한 전체 근로자 1인당 실질 월평균 임금총액의 경우 총액이 감소했을 뿐 아니라 증가세도 둔화

### 〈 최근 임금 동향 〉

(단위: 천 원, %)

구분	2008년 1/4분기	2008년 2/4분기
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(명목)	2,662 (6.1)	2,563 (6.3)
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(실질)	2,479 (2.2)	2,339 (1.5)
소비자물가지수	107.4 (3.8)	109.6 (4.8)

주: ( )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 
 자료: 노동부, 노동통계

- 물가상승세로 인해 실질 GDP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실질 임금 수준이 하락하는 등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을 초래
  - 실질 GDP의 1% 감소는 실질 민간소비를 약 0.35% 감소시키는 효과

### ② 고용 부진

- 2008년 들어 경기둔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 폭이 20만개 이하로 하락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

- 2008년 8월 일자리 창출폭인 15.9만개로 6개월 연속 20만개를 하회
  - 일자리 창출폭 추이(전년 동월 대비, 만개) : 23.5(2008년 1월) → 21.0(2월) → 18.4(3월) → 19.1(4월) → 18.1(5월) → 14.7(6월) → 15.3(7월) → 15.9(8월)

- 특히, 소비와 직결되는 서비스업(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기준)의 고용증가세가 둔화
  - 서비스업은 2007년 중 전 산업 일자리 창출 28.2만개 보다 많은 37.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전체 일자리 창출을 주도
  - 그러나 2008년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은 1/4분기 29.5만개, 2/4분기에 24.7만개, 8월에는 22.0만개로 감소

- 투자위축 등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인 고용정책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, 특례 고용법 개정 등 제도적 요인으로 고용이 부진
  - 세계경기의 위축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등으로 기업심리 위축과 재산성악화가 초래됨에 따라 기업들의 고용정책도 소극적
    - 2008년 들어서는 생산자물가 증가세가 소비자물가 증가세를 앞서기 시작하는 등 기업들의 원가비용 부담이 가중



- 한국은행의 '2008 8월 기업경기조사'에 따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채산성 실적지수는 8월 중 74와 83으로 각각 2004년 12월과 2005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
- 2007년 3월 특례고용허가제 개정과 7월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으로 내국인의 임시 및 일용직 고용이 크게 축소
  - 임시직은 2007년 3/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, 2008년 1~8월 중 9.3만명 감소
  - 특례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수가 2007년 19.4만명에서 2008년 8월에는 28.7만명으로 급증한 것도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제한

■ 계절조정실업률이 2008년 1/4분기 3.0%에서 2/4분기에는 3.2%로 소폭 상승한 것도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작용

- 특히, 2008년 8월 중에는 취업 무경험 실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천명 감소한 3.6만명을 기록한 반면,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천명이 증가한 72.8만명을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부진
- 소비함수 추정결과, 실업률 1%p 증가는 실질민간 소비를 0.12%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③ 자산가치의 하락

- 최근 지속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인해 2008년 들어 국내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
- KOSPI 시장과 KOSDAQ 시장의 시가총액의 합은 9월 25일 현재 832,3조원으로 연초의 1,032,3조원에 비해 19.2%나 감소

- 연초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중순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5월 16일 1,051.5조원으로 연고점을 기록한 이래 재차 하락 추세로 전환
- 특히, 리먼브러더스 사태의 영향으로 9월 12일에서 16일간의 1거래일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51.4조원이나 감소하는 등 불확실성도 확대
- 소비자물가 상승을 고려한 개인부문 실질금융자산도 2007년 4/4분기 이후 그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
  - 개인 실질금융자산증가율(전년 동기 대비, %) : 12.2(2007년 3/4분기) → 8.5(2007년 4/4분기) → 6.6(2008년 1/4분기) → 1.5(2008년 2/4분기)

〈 주식시장 시가총액 추이(KOSPI+KOSDAQ) 〉



자료: 증권선물거래소, 주식통계

- 최근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경기가 위축되며 주택가격의 상승세도 둔화되는 추세
- 2008년 6월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14.7만호로 2007년 말에 비해 31.2%나 늘었고, 주택가격이 상승세도 2007년 1/4분기를 정점으로 둔화
  - 특히, 물가를 고려한 전국 실질주택매매가격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008년 1/4분기와 2/4분기에 각각 -1.0%와 -0.4%의 감소세



### 3 전망 및 시사점

#### 민간소비의 회복은 지연될 전망

- 소비를 둘러싼 불리한 여건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하반기 중 민간소비의 정체국면이 지속될 전망
- 2008년 하반기 중에는 소비자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, 중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
- 투자 등 내수경기의 부진으로 향후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전망
- 국제 금융불안과 국내 부동산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자산 효과를 통한 소비증대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#### ■ 금융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은 **역자산효과**를 통해 소비를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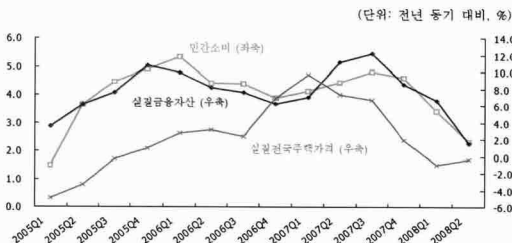
- 개인 실질금융자산이 1% 감소 시 실질민간소비는 약 0.23% 감소
- 실증분석 결과, 실질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
  - 이는 주택가격 상승 시 **부효과**를 통한 소비증대효과와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감소효과가 공존하기 때문

#### ■ 새정부의 성장지향적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불리한 대외여건도 안정을 되찾아가는 2009년 이후에나 소비가 회복세를 보일 전망

#### 물가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주력

- 단기적으로는 소비심리 냉각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물가불안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소비증진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
- 2009년에는 물가상승 압력이 차차 해소될 것으로 보여 재정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

〈 소비와 자산 〉



주: 금융자산과 전국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  
 자료: 한국은행, ECOS DB